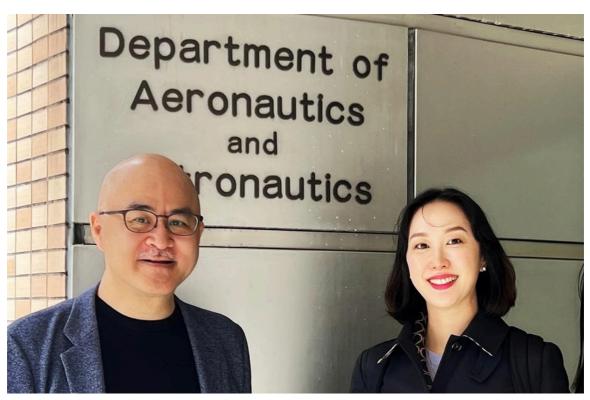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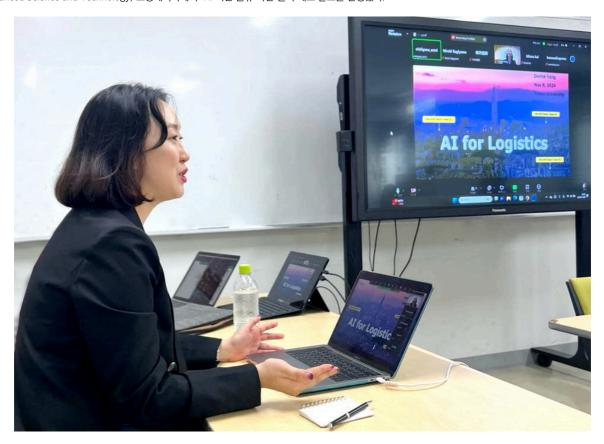
인공지능 인프라 플랫폼 '메일랩', 양동하 부사장 도쿄대 초청 세미나 'AI 기반 물류 혁신' 주제로 인사이트 공유

○ 전미준 기자 □ ② 승인 2024.11.11 17:02



(왼쪽부터)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선터장 니시나리 교수와 메일랩 양동하 부사장의 기념 촬영 모습(사진:메일랩)

인공지능(AI) 인프라 플랫폼 '메일랩(MAILab)'의 양동하 부사장 겸 최고 상업 책임자(CCO)가 지난 8일(현지시간), 도쿄대학교(University of Tokyo)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(Research Center fo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) 초청세미나에서 "AI 기반 물류 혁신"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.



이날 양 부사장은 MAILab의 마이크로-풀필먼트 & 마이크로-모빌리티 자회사인MicroFM이 AI 기술을 활용해 서울에서 1시간 이내 빠른 배송을 제공하는 QuickCom 서비스와 혁신적인 도시 물류 솔루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관련 인사이트를 공유했다.

특히, 인천 글로벌 물류 센터(IGLC)를 통해 K-뷰티 제품 외 직구 상품의 해외 전자상거래 물류를 최적화하며, 실시간 추적·수요 예측·경로 최적화 등 AI 기반의 물류 효율성을 강조하고 MAILab의 AI 슈퍼컴퓨터와 비전 AI 솔루션이 MicroFM의 창고 자동화와 대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, 미래 물류의 모델을 제시했다.



전미준 기자 mj1412@aitimes.kr

저작권자 © 인공지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